

함께 걸지만 서로 다른 詩의 길

같은 날 각각 개인시집 낸 최승호 · 계선 형제시인

번잡하고 이젠 낯아 보이는 종로통과 넓직한 도로에 황량하기조차 한 강남에서 느끼는 문명의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곳에서 만난 시인 최승호(36·민음사 주간), 최계선(28·세계사 편집장)씨도 그들의 시세계만큼이나 꼭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얼마전 같은 출판사에서 거의 동시에 시집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은, 알려진 대로 공동의 유년체험을 소유한 형제다. 8년의 나이차가 말해주듯, 그들이 함께 자란 춘천에서의 경험을 제외하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생활의 궤적을 밟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출판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인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함께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그들의 시세계에 있어서는...

82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시집인 '대설주의 보'를 비롯해서 '고슴도치의 마을', '진흙소를 타고'를 통해, 독특한 상상력으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낯설음'을 동반한 충격을 주면서 80년대 시단의 기류를 예감케 했던 최승호씨. 그의 네번째 시집이 되는 '세속도시의 즐거움'에서 혹자는 새로운 연대를 맞아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담담히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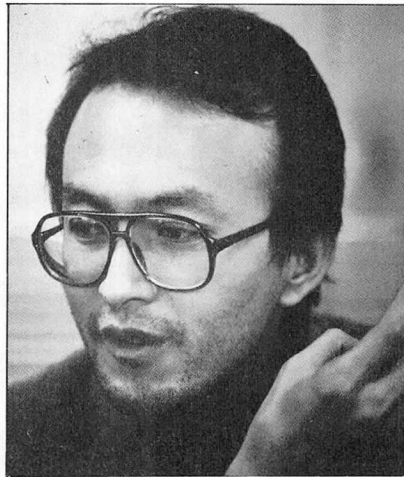
"저의 시적 관심은 초기부터, 이번 시집에서 '세속도시'로 상징된 현대문명과 죽음, 그리고 禪의 세계에 꾸준히 천착해왔습니다. 이들 주제를 기본축으로, 마치 물위에 던진 돌맹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의식의 확대·심화과정 이 있어왔을 뿐이죠."

기법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이전의 시집들이 거의 리듬을 무시한 딱딱한 느낌을 주었던 반면, 「진흙소...」부터 시도하기 시작한 리듬의 변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밝힌다. 즉 길이가 길어지고 보다 생동감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것. 또한 "기교보다는 뜻을 강조"하는데 비중을 두었던 이전 시들에 비해 쉽게 읽힐 수 있는 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시에 대해 '조소적 언어'라 명명했던 어느 평론가의 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이번 시집은 초현실적 분위기의 '그로테스크 신비주의'가 강조되고 있다고 자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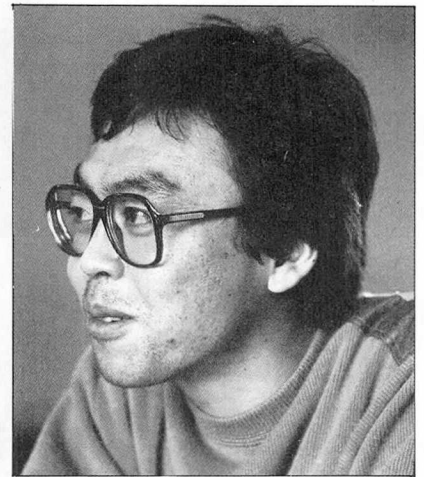
죽음의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한 그는 실제로 종교서적의 탐독가로 소문이 나있다. 선불교와 노장을 비롯, 에카르트, 엘리 아데 등을 두루 섭렵한 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평론가 김현교수의 지적대로 "삶에서의 초월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즉 "죽음의 세계를 껴안음으로써 삶-놀라움을 만들어내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속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추상적 관념들이 아니라 별레나 번기, 자동판매기, 수족관 등 구체적인 일상적인 매개물을 통해 발효되는 일종의 블랙 유우머가 배어난다.

그러나 "...내 나이테는 죽음의 나이테, / 죽음은 밖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꽃피는 죽음의 나무」와 같은 작품은 죽음의 실체를 자기 내부로부터 이끌어내는 차분한 선불교적 해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최승호씨의 시세계를 "자신에게 솔직하고 밀도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속도시의 즐거움」을 낸 최승호씨(왼쪽)와 「검은 지층」을 낸 동생 최계선씨.



고 평가하는 최계선씨에게, 중3때인가 뚝방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던 형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대학졸업때까지를 고향에서 보낸 그의 전공은 자원공학. 스스로 체질에 맞아 무척 좋아했다는 그는 "시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지층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었다고 한다.

'지질학적 시편'들로 구성된 이번 첫시집 「검은 지층」은 제목에서부터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검은 지층은 원래 공룡 멸종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되는 지질학 용어입니다. 왜소한 현대인들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욕망과, 그들이 지향하는 물질문명의 허상을 '공룡'으로 상징한 거죠."

그러나 제목의 의도가 욕심만큼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86년 「세계의 문학」으로 데뷔, 2년전부터 시집정리를 시작한 그는, "많

은 시가 없어졌다"고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다듬어가는 그의 시작법에 기인한 것이다.

일종의 반문명시라고 설명하는 그의 시세계의 지향점은 "자연 앞에 겸허한 인간본연의 모습"이다. 종종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는 '운석'을 현재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암시한 「마그마의 관입」과 같은 시가 좋은 예이다. 개인적으로는 "산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다.

이번 두 사람의 시집에는 自序나 해설이 없다. 이것은 독자의 상상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 한다. 감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선입관도 배제시키고 싶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이들의 시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공통점일까.

— 정소연 기자

“한 손에 짊 수 있는 작은 책, 그러나 감동은 한아름으로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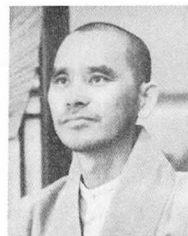
〈하늘〉과 〈사람〉의 하나 됨. 그 뉘는 하늘만의 것이 아니라는 의지적인 이행과 유추, 화해의 세계가 박희준의 시에는 있다. 단 그것은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만 가능한 세계이다.
— 정진규의 「해설」 중에서
• 값 2,000원

거인들이 사는 나라



신형건의 시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의 메시지이며, 현실의 온갖 굴절 속에서 상실해 버린 진정한 자아찾기의 즐거운 미로 여행이다.
— 이준권의 「해설」 중에서
• 값 2,000원

허공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소암 시인은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사악한 사상 따위를 초극하여 참생애의 무한대환 이상향의 영원한 생명가치를 詩作으로 드러내고 있다.
— 정공재의 「해설」 중에서
• 값 2,000원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



산뜻처럼 윤 유혜목의 시들은 언어의 감동이 선명하고 그 감동의 지혜가 향스럽다. 그러므로 그녀의 시들은 청명한 구조의 밀원(蜜源)으로 만나서 청초하면서도 깨끗한 산뜻처럼 체험하게 한다.
— 윤재근의 「해설」 중에서

전화 720-5990·1

진선출판사

팩시밀리 739-2129

늘.개.어.있.는.젊.은.목.소.리.로